

특집 / 돈사 자동화시설, 시행착오를 줄이자

이유자동용 급수기

설치시 고려할 점

스페인의 한 양돈장은 새로운 이유돈사를 건설할 때 자유급수를 위해 니플형 급수기를 채용했다. 니플형은 보울형보다도 청결하고 물의 소비량도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막 이유한 자돈은 급수방법을 좀처럼 알 수 없다는 결점을 발견했다.

이 문제에 직면한 양돈가는 많겠지만 이 스페인의 양돈가는 현명한 해결방법을 고안했다. 자돈이 이유 후 잠깐동안의 기간에 새끼양의 거세용으로 사용하는 소형 고무 링을 준비하여 이것으로 니플형 급수기의 유두가량(꼭지)을 눌러 끊임없이 소량의 물이 흘러내리

도록 한 것이다. 이것에 의해 자돈의 시야에 들어가기 쉬워져 음수의 학습시간이 대폭 감소되었다.

1. 니플형 급수기와 보울형 급수기

이유돈사의 개조에 의해 이제 막 이유한 돼지의 음수를 학습하는 것을 보조하는 방법이란 덴마크의 양돈장에서 연구되고 있다. 분만돈사에서는 현재에도 니플형 급수기를 설치하고 있지만 이유 후의 돈사에서는 보울(사발)형으로 변경했다. 이제 막 이유한 자돈은 이것에 의해 이전보다 음수량이 증가하고 채식량도 현저히 증가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 양돈장의 경우 급수기의 부착 장소에 나사가 붙어 있어 이것을 돌리면 소량의 물이 흐르게 된다. 보울형은 수면이 잘 보이는데다 이유자돈의 도입시에는 물을 흐르게 두었다.

이들 두가지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유 후 자돈에게 있어서 음수는 매우 중요하다. 급수기의 위치나 사용방법을 알 수 없다는 것은 탈수증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확실히 채식량이 감소되고 성장도 늦어진다.

이유 후에 문제를 일으키는 돈사는 종종 사용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급수기가 원인이 되고 있다. 한 관리자는 분만돈사

-홍보부-

에서는 보울형, 이유돈사에서서는 니플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두 성장단계에서 같은 급수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반드시 증명된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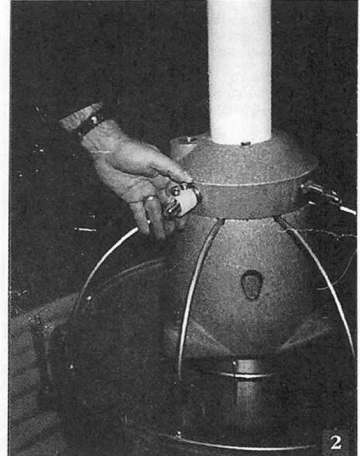
한 최근 시험에서는 분만돈사에서 니플형 급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돈에게 21일령에서 이유한 후, 니플형과 보울형을 선택하도록 해보았다. 그러자 자돈은 먼저 보울형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후 1~1.5일 지나서 니플형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이 비교는 영국의 SCA사의 시험농장에서의 급수기에 관한 연구에 의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전면 스노코 이유돈사에서 체중 7~16kg의 자돈을 한 군은 64두를 한돈방에 8두씩 8개의 돈방으로 나눈 군으로 사육해 보았다. 한 돈방에는 두 개의 니플형 급수기, 다른 돈방에는 니플형과 보울형 급수기를 동시에 부착했다.

동사의 영양학자 티블 씨에 의하면 니플형과 보울형 급수기를 동시에 부착하는 비용은 비교적 싸고 적은 돈방에서나 큰 군에서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는 자돈이 어떻게 빨리 보울형을 선호하여 사용하고 다른 급수기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보울형 급수기는 낭비가 많다는 점에도 주의했다. 이 점에서 3주령에서의 이유에서는



부드러운 링을 니플형 급수기에 부착하여 소량의 물이 흐르게 한 모양



플라스틱 통을 니플형 급수기에 부착하고 위쪽 나사로 유두가량을 눌러 소량의 물이 흘러내리게 조립한다.

먼저 보울형 급수기로 급수하고 그 후 몇일 동안 니플형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급수통을 다수 설치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이제 막 이유한 자돈은 무리지어 채식하는 것을 좋아하고 동시에 무리지어 음수하는 성질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적어도 이유 후 7일간은 사회적인 본능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수의 음수기를 돈방에 설치하는 것은 모돈에게서 떨어져 고형사료에 적응하고자 하는 자돈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행동의 학습을 회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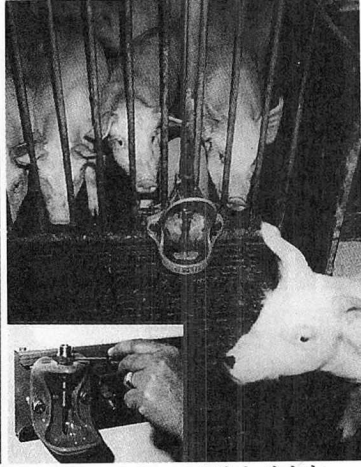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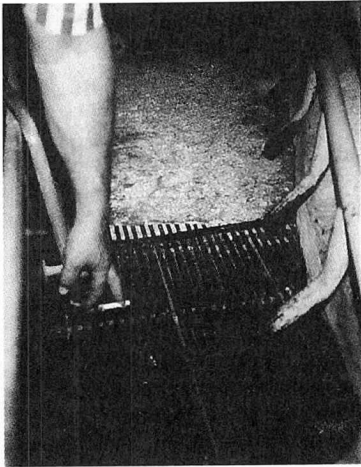
2. 벨형 급수기

무리지어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칠면조 사육용 벨형 급수기를 사용한 실험

을 실시했다. 여기에서는 한 돈방에 100두 자돈이 수용되며 두 개의 벨형 급수기가 주어졌다. 수면은 개방식이고 벨형 급수기의 주위 25mm의 깊이로 급수되며 급수기는 바닥에서 20mm의 높이에 늘어뜨려져 있다. 벨의 직경은 6두의 자돈이 동시에 음수할 수 있는 크기이다.

실제로 벨형 급수기는 이유 직후부터 확실히 자돈의 흥미를 끌었다. 자돈은 그 형태에 이끌려 쉽게 물의 존재를 파악하였다. 급수기가 더러워져 있으면 자돈은 음수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벨형의 또 한가지 특징은 위생적이라는 점이다. 벨이 늘어뜨려져 있기 때문에 자돈이 급수기를 더럽히거나 기울여 쓰러뜨리거나 할 수 없다.

물의 소비량은 직접 측정하지 않았지만 니플형이나 보울형 병용보다도 음수량이 확실히 많고 성장도 빠르다. 체중



덴마크에서는 분만돈사의 급수기는 니플형, 이유돈사에서는 보울형이 일반적이지만 보울형에는 물을 흘러내리기 위한 조절나사가 붙어 있다.

영국에서는 벨형 급수기에 의한 무리의 급수실험이 실시되고 있다.

7~16kg의 자돈이 1일 채식량이 48g 늘었고 증체량은 약 10%, 34g 증가하였다.

매분 500ml의 급수능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덴마크에서는 동시에 급수기의 색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의 전문가는 보울형급수기는 오염을 방지하는 그 형태뿐만 아니라 색도 자돈의 흥미를 끌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밝은 색쪽이 좋다고 한다.(Pig International)

3. 색의 문제

이유자돈용 급수기는 적어도

색에 대한 자돈의 지각은 형태와는 별도로인 것 같다. 한 유럽

동·물·약·품·도·매·전·문

국·내외
약·품·도·매
와·전·문

정직과 신용으로 달려온 외길 40년
21세기를 고객과 함께 열어갑니다.

유통의 KNOW HOW를 가진 (주)협성가축약품이 귀사의 적정재고를 유지시켜 주며 필요한 약품과 정보를 가장 빠른 시간에 최소의 비용으로 공급하여 귀하의 사업을 성공으로 인도합니다.



— 동물약품도매전문
(주)협성가축약품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287-31
- 본사 : 967-8779/964-4870
- 청량리영업소 : 965-9778
- FAX : 960-1894